

主 題

# 정보통신 기술표준화 추진전략 및 방향

한국통신 기술평가센터 소장 홍 기 수

## 차 례

- I. 서론
- II. 표준화의 특징
- III. 국제표준화 환경변화 추세
- IV. 국내표준화 추진현황
- V. 21세기를 대비한 표준화 추진방향
- VI. 맺음말

## I. 서론

주지하는 바와같이 전기통신에 기술표준이란 용어가 처음 사용된 이래 기술표준은 단순히 통신망의 품질 및 상호접속 등 순수 기술적 측면만을 고려하여 각국 정부(주관청)들이 주도적으로 표준개발에 주력하여 왔다. 그러나 오늘날 기술표준은 글로벌한 경쟁적 환경하에서 사용자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통신시장의 확보 및 사업전략의 수단으로써 널리 인식되어 오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정보통신의 글로벌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범세계적인 표준화가 과거 어느때 보다 더욱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으며 또한, 세계무역기구(WTO) 등에서는 국제표준의 준거여부에 의한 시장개방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표준화 환경변화에 따라 ITU, ISO/IEC JTC1 등 범세계적인 표준화기구들은 수동적이고 독자적인 표준개발에서 탈피하여 상호 공동협력 및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또한, 민간 제조업체들은 특정분야에 대한 포럼들을 구성하여 시장지향적이고 마케팅

전략 차원에서 사실표준(Defacto standard)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환경변화를 일찍 직시하여 정부, 통신사업자, 표준화관련 기관등을 중심으로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특히, 정부는 정보통신관련 표준화 추진체계를 일원화하는 동시에 정보통신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정보화를 촉진코자 지난 '97.1.16 "정보통신표준화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이러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그러나 21세기를 맞이하여 대외적인 환경이 현재에도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이제는 국내 표준화단체, 통신사업자, 제조업체, 연구소 및 학계 등의 역할 재정립과 협조체제를 보다 강화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내정보통신기술 표준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재도약의 시점이라 하겠다.

따라서 본 기고에서는 이러한 글로벌하게 변화하는 환경하에서 보다 내실있고 체계적인 국내표준화를 추진하기 위한 바람직한 표준화 추진전략 및 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 II. 표준화의 특징

일반적으로 정보통신기술 표준화의 이점으로 우선 정부(혹은 정부가 위임한 국가표준화기관)는 표준화를 통해 국내기업의 경쟁력 제고, 시장개방과 관련된 외국기업의 국내진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통신망을 체계적으로 구축, 운영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며, 통신사업자는 시장경쟁 체제하에서 이용자에 부응하는 표준화된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 가능하며 또한, 경제적인 통신망 구축 및 호환성 확보를 통해 이용자에게 보다 저렴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조업체들은 대량 생산으로 생산단가를 절감할 수 있으며 일관성 있는 기술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특히 이용자들은 표준화된 제품을 다양하게 선택, 사용할 수 있으며, 통신서비스를 보다 쉽게 사용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 III. 국제표준화 환경변화 추세

앞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글로벌화, 규제완화, 개방화란 측면에서 기술표준은 단순한 통신망 상호간 접속을 위한 표준개발이나 혹은 정보통신 제품 및 서비스의 상호운용성 확보 차원을 넘어, 이용자 만족뿐만 아니라 국제경쟁에서 유리한 시장 선점을 위한 전략적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과거 정부에 의해 독점되어 오던 표준은 이제 시장경쟁 원리에 입각하여 사업적 측면에서 상품으로 시기적절하게 개발, 생산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널리 팽배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로 글로벌화란 측면에서 이제 표준을 독자적으로 개발, 보급하는 차원을 넘어 표준화기구 혹은 기관들은 상호 협조체제를 공고히 하여 정보, 자원 등의 공유와 같은 표준화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하여 표준개발 노력의 중복을 방지하고 통합된 기술에 대한 호환성 있는 표준을

개발하고 있다. 셋째로 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기술들의 통합화, 다양화로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로, 요소 단위기술에서 통합기술 측면으로 표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표준의 양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넷째로 최근 표준개발 및 보급시기가 급속하게 단축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국제/지역 표준화기구 혹은 단체들은 표준자료의 공유, 신속한 표준화 활동을 지원코자 On-line 보급체계 확립을 위해 Web-based 표준정보유통시스템을 개발,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표준정보유통시스템은 자료의 DB화 및 공유뿐만 아니라 전자투표, 의견수렴, 표준안 심의 및 나아가 가상회의 등 표준화 활동에 수반되는 모든 사항들을 전자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발전되고 있다. 특히 최근 국제표준화기구들은 상호간 글로벌한 표준정보유통 환경을 위해 세계표준서비스망인 WSSN(World Standards Service Network)을 개발, 구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은 이제 단순한 정보화를 위한 하부구조가 아니라, 나아가 글로벌한 통신시장의 확대로 시장 및 무역지향적인 측면으로 발전되고 있다. 따라서 국제표준화기구등에서는 이러한 시대의 조류를 직시하고 21세기를 대비한 표준화 추진 전략 및 방향 등을 재조명하여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 IV. 국내표준화 추진현황

지난 '97.5월 정보통신부에서 추진한 정보통신표준화 체계정비에 의거 현재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를 중심으로 국내표준화 활동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또한 정부에서는 기술표준의 적기 공급 및 고도 정보화 달성, 정보통신 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WTO 체제의 능동적 대응 및 정보통신 선진국 대열 진입기반 구축을 위해 '97.12월에 수립한 "정보통신 표준화 추진계획"에 따라 정보통신

신 표준개발, 정보화 촉진, 국제표준화 활동지원 및 표준관련 정보유통기반 조성 등의 측면에 대해 약325억을 투자하여 표준화를 강화하고 있다. 현재 정보통신부에서 TTA에 건의에 따라 총460여건의 국가표준인 한국정보통신표준(KICS : Korea Information Communication Standard)를 제정하여 보급하고 있으며, 명실상부한 국내의 대표적인 표준화기관으로 단체/국가표준화 활동을 지원, 총괄하는 TTA에서는 전기통신분야, 전파통신분야 및 정보기술분야에 대한 단체표준(TTAS : TTA Standard)을 개발, 보급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내표준화 활동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TTA에서는 통신사업자, 제조업체, 연구소 및 학계 등의 회원들이 보다 활발한 표준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 표준자료의 신속한 보급을 위해 Web-based의 TTA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On-line 보급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표준화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현재 국내표준화 환경은 표준을 개발, 제정, 보급에만 집중되어 있으며 개발된 표준의 구현 및 시험검증을 위한 시험표준 개발에 대한 투자 환경이 극히 제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오늘날 개발된 국가표준이나 단체표준중 약 60% 정도가 ITU-T, ISO/IEC JTC1 등 국제표준을 단순 번역하거나 혹은 일부 옵션사항들을 선택하여 제정되고 있다. 이러한 표준화 추진은 바로 잘못된 번역으로 인한 오해의 여지가 있고 또한 번역상 과도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TTA에 참여하고 있는 몇몇 통신사업자들은 회사내부에 활용하기 위한 자체 사내기술표준을 적극 개발하여 사업에 적용하고 있다. 특히 한국통신에서는 1980년대 초부터 정보통신시설의 효율적 운용과 호환성, 연동성, 안정성 및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 요구사항을 규정한 기술표준을 제정 및 사업에 적극 적용하고 있으며 기술표준 개발 분야에서도 1990년 이전에는 이용자에게 양질의 통신서비스 품질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표준을

제정하였으나 1990년 이후에는 새로운 통신망 및 다수의 통신사업자의 등장으로 망인터페이스, 호환성/연동성 확보 방향으로 기술표준을 개발,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단기투자로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는 국내 일부 제조업체들은 외국 제조업체들에 비해 아직까지 표준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회사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활동지원을 위한 제반구조가 미흡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현재 국내표준화 활동은 대부분 통신사업자, 연구소 및 학계 위주로 추진되고 있음)

## V. 21세기를 대비한 표준화 추진방향

앞에서 지적한 바와같이 글로벌한 통신환경이 다가고 있고 또한 사회, 경제의 모든 분야에서 정보통신 및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국제, 지역 및 선진국가들도 표준화 차원에서 21세기를 대비한 표준화 추진전략, 정책 등에 대한 개혁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우리도 이러한 국제표준화 조류에 부응하고 나아가 국내의 모든 표준화 가용자원을 체계적으로 공유, 관리하고 협조체제를 공고히 하여 보다 차원 높은 국내표준화 추진전략 및 정책을 제고할 때이다. 따라서 국제표준화 활동강화와 더불어 국내표준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몇가지 사항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 1. 표준화관련 기관의 역할 재정립 및 협력 강화

표준화라고 하는 것은 그 속성상 상호 합의사항인 만큼 국내, 지역 및 국제 상호간 긴밀한 협조체에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상호이익을 위하여 지속적이며 상호보완적인 제휴 및 협력체제가 그 어느 분야보다도 필요하다. 특히 기술기반이 취약한 국내환경하에서는 정보통신표준화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 사업자, 제조업체,

학계등 표준화 관련기관간의 역할 재정립과 이에 따른 일사분란한 표준화협력 체계가 절실하다. 따라서 표준화의 각 주체들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된다.

#### ○ 정부

정부는 민간의 표준화활동을 활성화하고 이를 적극 지원하되 간섭은 최소화해야 한다. 표준화 추진 및 운영관리시 공정경쟁을 보장하는 동시에 발생할 지도 모를 제반 문제점을 조정하고, 국내에서 제정된 기술기준을 기반으로 하여 제조업체가 해외진출을 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국가차원에서 제공하며, 국내정보통신시장과 통신망의 보호 및 발전을 위한 정책을 입안하는 등 이를 강력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국제표준기구 및 관련 경제협력기구의 표준화정책, 전략, 방법, 및 정책적 이슈, 기타 지적재산권 등과 같은 사항 등을 분석하여 국내의 표준화정책이 국제표준화 방향과 괴리가 없도록 조정하는 등 이제는 글로벌화라는 시대를 맞이하여 국제표준화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국내표준화를 실질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다.

#### ○ 표준화기관

단체/국가표준화를 주관하는 국가차원의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전문지식과 능력을 갖춘 후, 국내외의 연구개발 및 표준화동향을 종합적으로 분석제공하고, 제조업체 및 통신사업자, 연구소 및 학계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술표준화를 주도하고 이를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국내의 각 표준화 주체들에게 미래의 표준화에 대한 비전을 제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표준화계획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표준화회의 참석이력 및 관련 표준정보와 분야별 전문가들을 DB화 하여 제공 관리하고 국내 표준화 유관기관의 다양한 표준정보유통시스템을 통합하는등 종합적 정보 및 자료관리 기능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 ○ 제조업체

최근 표준화가 일반 제조업체 주도로 발전되어 가고 있으나 제조업체의 표준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활동 및 참여가 미흡한 실정이며 특히 중소기업은 여유가 없어 더더욱 미미한 실정이다.

제조업체는 우선 장기적으로 정보통신기술과 제품의 발전을 예측하고 연구개발을 추진하며 국제표준화활동 특히 포럼에 자발적이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정부와 국책연구소가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기술예측과 표준화결과에 종속하여 소극적인 기술개발 행태를 지양하고, 선행기술을 위한 연구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하여야 한다. 또한 시장성을 지향한 전략적 표준화 대상을 선정하고, 기술개발 및 제품화와 연계된 표준화를 추진하여야 하며, 핵심기술의 조기 표준화와 이에 대한 조속한 참여를 통한 제품 경쟁력을 확보하고, 각종 포럼 및 세미나 등 표준화 활동뿐만 아니라 관련 국제표준화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 ○ 통신사업자, 연구소 및 학계

통신사업자는 복잡다양한 통신장비 및 제품들이 상호복합적으로 운용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상호연동성 및 운용성의 문제점 등을 연구하고, 효율적인 망운영을 위한 요구조건을 제조업체에 제시하고 이를 국가표준에 반영해야 한다. 한편 연구소 및 학계에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새로운 표준화대상을 제시하고, 기술발전 추세에 따른 핵심요소기술을 연구하여 필요한 기반기술 및 표준을 확보하는 등 국가의 기술역량을 제고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이 정부, 산, 학, 연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체제를 유지해 나갈 때 경쟁력있는 표준화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 2. 민간 주도적인 표준화 강화

전술한 바와 같이 현재의 표준화는 시장중심적이며 제품중심적으로 추진되어 가고 있다. 세계각국의 제조업체들이 주축이 되어 사실표준을 개발하는 각종 포럼의 활동이 활성화되고 있고, 그 역할이 강화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와 같이 민간업체들의 표준화활동이 국가차원에서 중요한 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국내의 표준화는 정부와 국책연구소, 그리고 일부 통신사업자들이 주도하여 왔고, 대다수 제조업체들은 소극적이고도 형식적으로 표준화활동을 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 결과 양적인 표준의 증가, 표준을 위한 표준화라는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 초래되었다.

따라서 향후 민간업체들이 시장성을 지향한 경쟁력이 강한 표준화 분야를 선택하여 핵심기술의 조기 표준화를 통한 제품경쟁력을 확보토록하는 데 표준화활동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표준화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표준화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에게 상당한 이익이 주어진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즉, 표준화활동 자체를 보유 기술 및 서비스를 홍보하고, 신규 기술을 도입함과 동시에 경쟁업체의 기술(서비스)개발계획을 파악하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피부로 느끼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표준화 관련 각종 정보를 쉽게 검색토록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각종 표준화회의를 유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된다. 둘째, 표준화의 장을 일부 대기업 및 앞선 기술을 보유한 일부가 전적으로 주도하고, 국내외 표준 자료 및 정보를 독점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소외감을 최소화하도록 공개적이고도 투명하게 이끌어야 한다.

셋째, 제조업체들의 표준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국가표준화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을 해야 할 뿐 아니라 상호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할 때 사전 조정하고 해결할 수 있는 제도

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 3. 글로벌한 표준화활동 강화

국내개발기술을 국제표준화에 반영하고 반면에 국제표준을 국내기술개발에 신속히 적용하기 위해 국제표준화활동에 주력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IMF 구제금융 체제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점에서 단기적으로 그 결실을 얻을 수 없는 표준화 특히 국제표준화활동에 자칫 소극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장기적인 안목에서 세계표준화를 주도하고 있는 ITU, ISO/IEC JTC1 뿐만 아니라 유럽의 ETSI, 미국의 T1, 일본의 TTC 등 여러 표준화활동에 참여함은 물론 이들 기관간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지역별 블록화에도 대비하여야 한다. 다음에는 이러한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 ○ 표준화 전문가 육성

국제표준화활동은 기본적으로 표준화회의의 개최를 통한 참석자들 간의 조정과 공동작업이 축적된 결과로 추진된다. 따라서 이러한 표준화활동을 주도하고 원활한 국제표준화를 추진하는 데는 국제표준화동향을 국내에 전파함은 물론 표준제정시에 우리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더 나아가서는 회의를 이끌어갈 수 있는 표준화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함은 인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국내의 현실은 이러한 전문가의 절대다수가 부족할 뿐아니라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회의에 참가하지도 못하는 실정이다. 이를 위해 표준화전문가의 DB를 구축하고, 기술적인 능력뿐 아니라 어학력, 교섭능력, 조정능력 등을 갖춘 인물을 육성할 수 있는 훈련과정 등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또한 이들이 항상 표준화회의에 참가할 수 있도록 배려함은 물론 물적 지원등

을 아끼지 말아야겠다. 그러나 재원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중점분야를 선정하여 의장/부의장 등 요직에 전문가를 진출시키는 등 그 표준화활동을 리드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목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제 관련 정부소관부처에서는 국제표준화회의의 국내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추진하여야 함은 물론 대외홍보에도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 ○ 사실표준화 활동 강화

최근 정보통신서비스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표준안에 대해 합의하므로써 표준을 제정하는 ITU등 국제표준화기구만으로는 이용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신속한 표준화가 곤란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표준제정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유력한 제조업체들 간에 실질적인 제품화를 위한 규격 및 표준을 도출함으로써 시장을 점유하고자 하는 현실적인 요구에 따라 제조업체 및 민간 표준화활동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ITU에서의 효율적인 표준화가 곤란한 분야에서는 ATMF, NMF, IETF 등 포럼활동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가능한한 필요에 정확히 대응한 표준을 제공토록 유연하게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 4. 통합적인 표준개발 전략 수립

갈수록 다양하고 고도화되어가고 있는 기술개발 추세 및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표준화해야 할 항목도 복잡다양해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국내 표준화는 질적인 측면보다는 양적인 표준화, 일부를 제외하고는 국제표준을 단순히 번역하는 수준의 표준화, 그리고 표준을 위한 표준화를 추구하였다. 또한 TTA주관으로 표준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5년 단위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각 회원사의 충분한 의견반영이 어려워 계획과 실제추진상의 괴리가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따라 각 회원

사가 표준화를 중복추진하는 등 자원의 낭비 및 혼란이 있었다.

따라서 국내의 한정된 인력, 예산, 설비 및 시간으로 기술개발을 선도하는 표준, 국가정보화에 적용될 수 있는 실용적인 표준, 나아가 국제표준으로 채택될 수 있는 표준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종합적인 표준화계획을 수립하여 정부차원에서 강력히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첫째, 표준개발 계획은 국가와 민간 등 관련 주체들이 참여하여 공개적절차에 의해 수립되어야 한다. 둘째, 표준개발 계획은 융통성있게 수립되어야 한다. 향후의 표준화가 표준을 위한 표준화 단계를 넘어서서 시장중심적인 방향을 지향하기 때문에 국가표준화기관은 표준화에 대한 소요가 발생시 언제든지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표준개발 계획은 선진국 및 국제표준화기구의 표준화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작성하되 국제기술수준과의 차이 및 우위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하여 우위에 있는 국내기술을 국제표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표준개발대상 선정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되어야 한다. 즉 이용자와 수요자(통신사업자, 제조업체 등)가 다같이 적극 참여하여 토론하고 협의함으로써 결정되어야 하며, 이미 상용화된 제품기술에 대한 국가표준을 제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기술예측을 바탕으로 선정해야 한다.

또한 세계시장의 기술추세와 시장의 규모 및 해외업체의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거시적 차원에서 국가경제 및 산업체의 경쟁력이 제고되는 방향으로 선정되어야 한다. 넷째, 특정기술을 채택함에 따라 발생할지도 모를 관련 업체의 선행투자의지의 저하를 막고 자유로운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표준화원칙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 한 복수 기술에 대한 유연한 수용이 체계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표준화대상의 시급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추진하되 제한된 표준화 인적, 물적 자원의 투입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여섯째, 향후 국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핵심표준화분야를 선정하여 이를 중심으로 표준화계획이 수립되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초고속 통신망 구축을 위한 B-ISDN/ATM표준과 유무선 통합을 지향하는 IMT-2000의 표준화 및 광대역무선통신, 그리고 멀티미디어 관련 표준 등이 있을 수 있다.

### 5. 표준정보 보급체계 강화

표준화에서 국내외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원하는 이용자들에게 적기에 제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도 필수적인 작업이다. 이제는 단지 표준정보 수집 및 동향 파악만을 위해 국제표준화기구의 참석을 지양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표준관련 자료 및 각국의 동향을 경제적이고도 효율적으로 입수하여 이를 공유하는 방법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 표준화관련 기관들은 표준정보의 DB를 구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현재 기관간 독립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이러한 표준정보유통시스템의 상호공유를 강화하여 더욱더 향상된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할 뿐 아니라 또한 급속하게 변화하는 표준화 환경 속에서 효율적이고 고품질의 정보를 필요한 시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고도화 하는데 다함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VI. 맺음말

앞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국제적으로는 글로벌한 표준화 환경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여 국내 기술개발 및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국내표준화 활동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우선 정부는 표준 소요 자원의 확대와 동시에 적절한 배분을 통해 시장요구에 부응한 전략분야를 집중 개발하여 중점적으로 투자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표준화관련 기관에서는 국내표준화에 있어서 정부가 수행하는 표준화 활동과 민간차원의 표

준화 활동을 명확히 구분하여 추진하는 동시에 특정사항에서는 상호연계를 도모하면서 국내표준화를 추진하여야 할 것 이다. 즉 통신망의 위해 방지및 주파수 할당 들과 같은 유한한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최소한의 기술분야에 대해서만 국가표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민간단체에서는 공개된 통신 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표준개발에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제조업체, 통신사업자 및 연구소 등 표준개발자들은 이제 국내에서만 통용되는 특정기술을 제외한 분야에 대해 표준을 개발할 때 국내시장만 고려한 연구, 개발 및 표준화 활동보다는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초기부터 국제시장 및 국제표준화에 목표를 가지고 활동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마지막으로 이제 21세기를 대비한 글로벌화 시대를 맞이하여 특히 정부는 국내 산업육성 정책수단으로서 표준개발자들이 중요기술분야에 대한 연구 개발 및 기술표준을 보다 전략적으로 추진하여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기술이 될 수 있도록 물적 및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홍 기 수

1974년 한양대학교 전자공학과 졸업  
1984년 한국통신 사업지원본부 교환 S/W연구실장  
1992년 한국통신 S/W연구소 S/W공학연구부장  
1995년 한국통신 연구개발원 연구계획국장  
1996~현재 연구개발본부 기술평가센터 소장